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9.8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이번 11호 태풍 ‘힌남노’로 경북 경주·포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 -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·지원하여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
[❶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]

-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.
 -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,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 下에 ‘따뜻한 나라, 모두가 행복한 사회’를 만들기 위한 ‘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(8.30일 발표)하였습니다.
 - 첫째, 스스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핵심대상으로 지원하는 “서민·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”
 - 둘째,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“두텁고 촘촘한 복지”
 - 셋째,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“지속가능한 복지”입니다.

□ 이를 위해,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❶저소득층, ❷장애인, ❸취약청년, ❹노인·아동·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,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○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'22년 65조 7천억원에서 8조 7천억원 증액한 '23년 74조 4천억원으로 +13.2%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○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(97%)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입니다.

□ 특히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,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.

○ 반영된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, ❶생계·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.8만 가구를 보호합니다.

○ ❷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습니다.

○ ❸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,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합니다.

□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,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,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[② 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]

□ 다음으로, 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최근 기술창업·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*하는 등
우리 벤처·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
* 기술창업 수(만개) : ('19) 22.1 → ('20) 22.9 → ('21) 24.0 → ('22.上) 12.1

** 신규 벤처투자(조원) : ('19) 4.3 → ('20) 4.3 → ('21) 7.7 → ('22.上) 4.0

○ 다만,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·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이제는 역량있는 벤처·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
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
벤처·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

① 우선, 국내·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유망기업
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, 성장기 스타트업의
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
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② 또한, 창업비자(D-84) 갱신기간을 확대(1년 → 요건 충족시 2년)하고,
전문직 비자(E-7-1)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
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,

-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
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③ 마지막으로, 벤처·스타트업 통합 브랜드("K-Startup")를 확립
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

□ 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
대해서는 중기부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

(중기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,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